



시애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주보

11700 1st Ave. N.E. Seattle, WA 98125 | 사무실 : 206-362-2278 | 연례회 : 206-334-7050
 www.standrewkim.us | Email: standrewkim.us@gmail.com | 발행인 : 김다울 클레멘스
 주임신부: 김다울 클레멘스 | 보좌신부: 박윤기 F. 하비에르 | 이 크리스토폴 수녀 | 박 하비에르 수녀



멀어진 마음에도 길은 남아 있습니다.

사랑은 그 길을 먼저 걷는 사람의 발걸음입니다.

상처가 깊어 말조차 건네기 어려운 날에도

주님은 형제를 포기하지 말라 하십니다.

용서는 지난 아픔을 지우는 일이 아니라

그 아픔보다 사랑이 더 크다고 믿는 일입니다.

내가 너에게 한 걸음 다가가고

네가 나를 향해 마음의 문을 열어 줄 때,

우리 사이의 가장 작고 가난한 그 자리에

말없이 하느님의 나라가 피어납니다.

ACA(Annual Catholic Appeal) 2026

ACA는 시애틀 교구장 대주교님의 뜻에 따라 교구에 직접 내는 봉헌금으로 교무금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모든 신자들이 참여해야 합니다.

- 교구에서 각 가정으로 우편으로 발송한 인쇄된 원본 ACA 봉투를 사용하십시오.
(기부자의 이름, 기증자의 ACA ID 번호, 주소가 미리 인쇄되어 있음)
- 현금보다는 수표(Check) 또는 신용카드(Credit Card)로 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리 인쇄된 원본 봉투를 분실하여 일반 ACA 봉투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기부방법을 봉투에 작성할 때, 온라인으로 기부 하시려 할 때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 대교구에서 발행할 연말 세금 정산 서한(Tax Report)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ACA 봉투에 모든 정보를 작성한 후 교구로 직접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신속합니다.

우리 본당 목표 금액 - \$ 57,774

09/03/2026 기준

목표 금액 - \$ 57,774

현재 기부 금액 - \$27,125

현재 참가 인원 - 70명



본당 복음화 일치를 위한 기도

매일 저녁 9시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을 바치고

+ 교회의 어머니이신 복되신 성모 마리아님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 + 성 김대건 안드레아와 한국의 모든 순교 성인들이여
- 시애틀 대교구와 저희 본당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성가 안내

입당 성가 : 456 예물 준비 성가 : 212, 511 성체 성가 : 501, 502 파견 성가 : 285



시에나의 가타리나

교회 박사 | 이탈리아의 수호 성인

교회 역사 안에서 '교회 박사'라는 칭호가 수여된 이는 33명으로 알려졌다. 여성은 시에나의 가타리나, 리지외의 성녀 데레사, 아빌라의 데레사 등 세 명이 꼽히는데, 그중에서도 시에나의 가타리나(1347?~1380)는 1970년 교황 바오로 6세에 의해 아빌라의 데레사와 함께 여성으로서 처음 교회 박사로 선언됐다.

아빌라의 데레사와 함께

그는 33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살면서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독학의 상태로 12세기 빙엔의 힐데가르트, 13세기 막데부르크의 멕틸데, 14세기 스웨덴의 브리짓 등 여성 신학자들의 뒤를 이어 교회 영성사 조류에 영향을 미치고 또 여성 영성의 전통 맥을 이은 것으로 평가된다. 대단한 활동가이면서도 깊은 관상가였고, 또 자신의 신비 체험을 통해 당시 정치권과 교회 장상들의 영적 지도를 맡았던 가타리나. 그녀는 전통 신학과 영성적 가르침들을 자신 안에 흡수, 통합적 지식과 영성을 형성했으며, 이를 신선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는 카리스마를 보였다.

“성녀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녀에게 주어진 지혜입니다. 말하자면 이 지혜는 알기 쉽고 깊이가 있으며, 천상적 진리에 관해 도취시키는 열정이자 친구와 성서 안에 담겨진 신앙의 신비를 말합니다. 이러한 동화는 분명히 가장 특이한 자연적 선물들로 인해 베풀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또한 신비적인 은사, 곧 성령으로부터 나온 지혜의 은사에 기인한 의심의 여지없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교황 바오로 6세, 가타리나 성녀의 교회 박사 선언 강론)

가타리나 성녀의 본명은 카테리나 베닌카사(Caterina Benincasa). 1347년 주의 탄생

예고 대축일에 이탈리아 토스카나 지방 시에나에서 염색업을 하는 베닌카사 가문의 25명 자녀 가운데 막내딸로 태어났다. 그는 천성적으로 생기발랄한 성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7살 때 봉헌 결심

7살 때 이미 자신의 온 일생을 예수님께 바치기로 결심한 그는 이후 안전한 집안으로 딸을 시집보내려는 집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정을 지키며 금욕적인 생활을 했다. 16세가 되던 해에는 만텔라테회(Mantellate, 도미니코 제3회로 이들은 수도복을 입고 가정에서 살면서 도미니코회 지도하에 병자들과 가난한 이들을 돌보았다)에 입회했으며, 18살 때부터 3년 동안 독방에서 오로지 기도와 침묵으로 일관했다. 글 읽기를 터득한 것도 이 시기에 이뤄졌는데, 20세가 되면서 그리스도와 '신비적 약혼식'을 가졌던 가타리나는 '교회 새신에 기여하라'는 깨달음을 얻고 만텔라테회 회원들과 함께 토스카나 지역은 물론 이탈리아 전역, 나아가 고국을 벗어나서까지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했다. 병자 간호와 특히 죄인들 개종에 힘썼던 가타리나는 흑사병 같은 전염병을 앓는 환자들에게도 벗이 되어주었다. 이는 많은 이들을 감화시켰고 또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한편 가타리나의 행동은 비판적인 사람으로부터 모략과 박해를 받기에 이르는데, 이로써 도미니코회 총회 석상에 출두, 신앙을 검토받기까지 했다. 가타리나는 1376년 아비뇽의 그레고리오 11세를 찾아가 교황에게 대항하고 있는 피렌체인들과 화해하도록 간청, 교황이 다시 로마로 돌아오게 하는 결정적 역할을 했고, 계속해서 독일과 이탈리아의 도미니코 개혁에 기여했다. 또 말년에 이르러서는 분열된 교황권과 교회 통일을 위해 매일 로마 성 베드로 성당에 가서 미사와 기도를 봉헌했다. 이외에도 하느



님과 대화와 기도, 교회 각계각층 사람들을 위한 기도 바치기와 편지 보내기 등으로 자신의 몫을 다했다. 자신의 신비적 체험을 기록한 저서 『대화』 외에도 약 400통의 편지를 남긴 가타리나는 1380년 4월 29일 '주여, 내 영혼을 당신께 맡기나이다'라는 최후의 말을 남기고 하느님 품에 안겼다.

이탈리아의 수호성인

“어머니가 자신의 젖으로 아이를 먹이듯 기도는 하느님께서 가까이 계시다는 것으로 우리를 먹여 기른다.”

가타리나는 기도에서 우리 자신의 방법에 집착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도록 내어 맡겨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분 사랑을 충분히 느끼지 못할 때라도 하느님께 마음을 두고 신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기도를 '예수님의 발에 매달리는 단계', '예수님의 옆구리에 이르는 단계', '예수님과 입맞추는 단계'로 구분했다.

“하느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분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섭리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1416년 교황 비오 2세에 의해 성인품에 올랐던 가타리나는 1939년 이탈리아의 수호성인으로 선포됐다.

공지 사항

1 추석 합동 위령 미사

● 일시 : 9/27(주일) 9:30 연도, 10:00 미사
추석 합동 위령 미사를 봉헌합니다. 미사지향예물을 미리 사무실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령미사가 봉헌되는 당일 9/27(주일) 오전 8:00, 11:30 미사는 없고, 오후 5:30 미사는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2 하늘뜨락제 역사 사진전 연장

우리 본당 5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역사를 돌아보는 시간을 우리 모두에게 주고자, 하늘뜨락제때 개최하였던 역사 사진전을 2주간 연장 전시합니다.

많은 신자들의 관람 바랍니다.

● 장소 : 교리실 110, 111, 112호실

3 구역 음식봉사 / 구역의 날

● 일시 : 9/13 (주일)
● 음식 봉사 : 밀크릭 구역
● 메뉴 : 새우와 야채볶음 덮밥
각 구역원들은 모두 함께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4 2027년 달력 광고 모집

2027년 달력 광고를 원하시는 분 (업체)께서는 9/6(주일)까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는 8곳에서 달력 광고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문의 : 홍보분과장 (603-440-5468)

5 성 김대건 한국학교 학생 모집

2026-27년도 1학기 학생 모집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배우며 예쁘게 성장할 수 있도록 1학기 학생을 모집합니다.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개강일 : 9/11(금요일) , 9/12(토요일)

● 대 상 : 만 4세 이상 부터

6 성 김대건 한국학교 보조 교사 모집

한국학교 26-27학년도 보조교사를 모집합니다. 신청서는 성당과 한국학교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1차 신청서 제출 후 2차 면접이 있습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7 영어권 성서 모임 모집

young adult + adult
BIBLE STUDY
영어권 성서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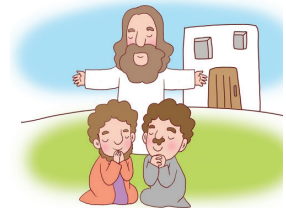
Genesis | Exodus
창세기 | 탈출기

Come join us as we dive into the Word of God!
Schedule to be determined after registration.

<https://tinyurl.com/cblm2026>

scan to RSVP!



입당송

주님, 당신은 의로우시고 당신 법규는 바르웁니다. 당신 종에게 자애를 베푸소서.

제1독서..... 예제 33,7-9
<네가 악인에게 경고하는 말을 하지 않으면, 그가 죽은 책임은 너에게 묻겠다.>

화답송

◎ 오늘 주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너희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마라.

제2독서 로마 13,8-10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 알렐루야.

복음 마태 18,15-20
<그가 네 말을 들으면 네가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영성체송

사슴이 시냇물을 그리워하듯, 하느님, 제 영혼이 당신을 그리나이다. 제 영혼이 하느님을, 생명의 하느님을 목말라하나이다.

연중 제22주일(8/30)	토요 저녁(7:00)	주일 아침(8:00)	교중(10:00)	청소년(11:30)	청년(5:30)	미사 참례자 합계
미사 참례자	54명	86명	264명	105명	41명	550명

교우 비즈니스 광고

Styles Law/골든 부동산(대표)	CPA, Cho & Assoc. LLC	박영진 부동산	엠마 스킨 케어
변호사 -Jeremiah Styles 케이스 매니저-서역원 마르띠노 206-335-3090	세금보고/상속.증여/회사설립 해외소득.자산보고/투자이민상담(예약) 206-353-6002 조도현 미카엘	고객 평가 1위 Windermere Real Estate 206-833-7979	스킨 마사지, 경락, 점, 검버섯, 타투 G마트 2층(린우드) 425-525-9955
공간 디자인(Interspace Interior)	시애틀 교구 관할 천주교 묘지 (매장땅/납골당) 미리 구입 상담	Pearlshining Photo	퀀텟 융자/부동산
블라인드 시공설치 전문 임정옥 마르세리노 206-669-4922	홀리루드 / 갯세마니 박요안나 206-434-5670	알루미늄 페널 사진, 여권사진, 장수사진 반태성(바오로) 206-883-3080 Lynnwood H-Mart 내	퀀텟 모게지 & 유니버스 부동산 대표 토니 장 (안젤로) 206-719-3502
KCR MEDIA GROUP	24시간 한국방송 &TV	IRA/401(K)	김현숙 부동산
교차로 / 블루북 www.wowseattle.com 대표번호 425-712-1236	실시간 방송 11개 채널 KBS/MBC/SBS/케이블 방송 등 425-777-6667	U & T Financial 김용근(Glen) 바실리오 206-880-1190	Windermere Real Estate 주택/콘도전문 206-375-5959
황바로 바오로 CPA	리나 웰니스 클리닉	안영미 글라라 종합보험	이상휘(스테파노) 부동산
세금/회계/회사설립/감사대행 425-742-7675(린우드 대한부인회 옆) info@phcpallc.com	비만/호르몬 치료 비타민 주사 206-485-3112(최주연 리나)	메디케어/오바마케어 생명보험/ 자동차보험/사업체 보험 425-791-0638/253-778-3974	주택 전문 /John L.Scott 425-770-1212
동서 한의원	New York Life	State Farm(첼시 황보 보험)	블루밍 치과
425-773-7979	은퇴연금/상속계획/연금성보험/단기저축 IRA/401K/Rollover/학자금보험/롱텀케어 김수현 (바울리노) 253-802-2550	자동차, 주택, 생명, 사업보험 22618 Hwy 99 ste. #113 Edmonds 425-329-8396 (부한마켓 옆)	임플란트, 교정, 보철 4215 198thst SW #205 Lynnwood, WA 윤성욱 가브리엘 425-775-1800
아틀라스 척추 의료원 14608 Hwy 99 #309 Lynnwood	강남 한식(구 린우드 한강) 장병돈(미카엘) 503-442-3690	메디아트 패밀리 클리닉	이재호 (베드로 치과)
교통사고 상해, 직장 상해 김진영 요안나 425-742-0332	냉면 - 감자탕 - 순두부 - 도시락 캐터링 - 김치/ 반찬 / 점심배달 19505 44 th Ave. W. Lynnwood	일반 내과, 부인과 진료 425-233-8254 (Bellevue)	임플란트, 레이저치과, 아동치과 206-362-2500 16535 5th Ave. NE Shoreline
정가네 반찬	황명심 데레사, CPA, CFP	굿닥터 카이로프랙틱	그린 리본 프로젝트
반찬, 케터링 전문 206-906-9789 206-372-6481	세금보고, 회계업무 425-373-0380 / 425-802-7999 SabrinaHwang@CPA.com	김병성(프란치스코) 425-775-7550 19514 64th AVE W Suite B Lynnwood	그림을 통해 나를 찾는 과정 여성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 213-926-7030(Issaquah)
희망미디어(Hope Media)	New Haven Geriatric Psychiatry	핸디맨	Bridge Tax Services
홈페이지제작/광고/행사/유튜브촬영& 편집/ 253-256-1854 Kwom.guhun@gmail.com	노인 정신과 206-657-4829 www.newhaven.care	페인트, 벽지, Hardwood Flooring 206-498-8164 임화식 레오	개인 및 자영업자 세무 회계 전문 CPA 김효진(릿다) 425-243-7423 www.bridge-taxservices.com
웅진 코웨이 USA	뉴 해남 식당	Banji (Korean Speed Dating)	시애틀 풀락 (떡화명란, 간장게장, 시래기)
정수기, 청정기, 비데, 안마의자 렌탈 253-632-0498 토마스 조	11:00 AM~9:30 PM 매주 화요일 휴무 206-367-7843	425-999-1874 김현숙 헬레나 banjiseattle@gmail.com	425-534-9255 www.seattlepollack.com 4215 198th St. SW #204 Lynnwood

미사 시간 및 성사 안내

주일 미사	토요일-7:00(오후), 주일- 8:00(오전), 10:00(오전), 11:30(오전)-YG/주일학교, 5:30(오후)-청년미사
평일 미사	화 / 목 - 오후 7:00, 수 / 금 -오전 10:00
성사 안내	봉성체 : 목요일 (9/24/26) 유야세례 : 오후 3시 토요일 (10/17/26)

(재)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

네팔 홍수 피해 긴급구호에 미화 10만 달러 지원 결정

한국 천주교 공식 해외원조 기구인 (재)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이사장 조규만 주교)은 네팔에서 발생한 대규모 돌발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돕기 위해 긴급구호 기금 미화 10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해당 기금은 네팔 카리타스를 통해 홍수 피해 주민을 위한 긴급구호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2026년 8월 26일 네팔 라수와 지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돌발홍수로 인해 주거지와 도로, 교량, 수력발전시설 등 주요 기반시설이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다. 국제 카리타스는 8월 29일 기준 사망자 626명과 실종자 2,426명이 확인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도로와 통신·전력시설의 파괴로 수색·구조와 구호물자 전달에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주민 대피와 임시 거처, 식량, 식수와 위생, 의료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다. 네팔 카리타스는 지방정부 및 현지 협력 단체와 함께 피해 현황과 긴급구호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며, 8월 28일부터 50곳 이상의 무료급식소를 통해 피해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피해 주민 1,000가구에 임시 거처와 필수 생활용품, 식수·위생키트, 태양광 조명 및 충전시설을 제공하는 등 즉각적인 구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 홍수 피해 현장에서 긴급구호 활동을 펼치고 있는 네팔 카리타스 구호팀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8월 31일부터 '네팔 홍수 피해 긴급구호 특별모금 캠페인'을 시작하였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모인 성금은 네팔 카리타스에 신속히 전달하여 피해 주민들을 위한 긴급구호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홍수 피해 복구와 재할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홍수 피해에 대한 예방을 위해 중장기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네팔 홍수 피해 지역의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의 특별모금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은 바티칸에 본부를 둔 국제 카리타스(Caritas Internationalis)의 정회원기구이다. 국제 카리타스는 전 세계 162개 회원

기구로 구성된 가톨릭 국제 구호·개발 협력 네트워크로, 각국 주교회의와 연계하여 재난 지역의 긴급구호와 중·장기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 네팔 홍수 피해 긴급구호 후원 문의: 02)2279-9204, 한국 카리타스 홈페이지

▶ 특별모금계좌: 우리은행 1005-702-918966 (예금주: (재)한국카리타스인터내셔널)